— FBI스토리〈14〉 —

美国搜查秘話

돈·화이트 헤드 著

金 嚆 洙 訳

〈延世大 法大教授〉

科學者와 未知人

공작원들은 어떤 단서라도 발견할지 모르는 모든 기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그들은 암호기호 「이골구젠코」가 쏘련 「웃타와」駐在大使館으로부터 도망하여 쏘련原子스파이의 활동을 폭로한 1946년 「카나다」스파이 사건의 綴을 검토 [illegible]

소록의 복사가 있었다. 그 이름 가운데 「스콧트란드」「에딘바라」大學 「죠지」街 84번지 「크라우스·푹흐스」라는 기입이 있었다. 이같은 기입은 1946년에 있어서는 FBI공작원에게는 아무 특별한 의미도 주지 못하였다. 또한 후에 「푹흐스」의 누이로 알려진 「크리스텔·하이네만」의 이름은 거기에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 人名録을 「카나다」로부터 받았을때 FBI는 原子의 人的安保에 관계되는 한 그것은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많은 정보가 서로 합쳐질때 「푹흐스」에게 모두 불리하였다. 「후우버」는 새로 진전된 것을 英國情報局(M15)에 알리고 감시를 요하는 인물로서 「크라우스 푹흐스」를 암시하였다. M15공작원들은 「푹흐스」를 미행하였다. 10월말에는 英國政府는 「푹흐스」가 原子스파이거나 적어도 「스파이」中의 1인이라는 것을 결정하였다.

「하웰」 保安官吏 「윌리암·J·스카돈」이 「푹흐스」의 門을 두드린 것은 1949년 12월이였다. 방안에 들어서자 「윌리암·J·스카돈」은 「푹흐스」에게 쏘련정보를 제공한 사람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푹흐스」는 놀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불쑥 말하였다. 「스카돈」은 고집하였다. 그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모호한 응답입니다.』『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읍니다. 아마 당신은 나에게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았읍니다』라고 「푹흐스」는 말하였다. 「푹흐스」는 계속 범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1950년 1월 24일 그는 「스카돈」에게 만나고 싶다는 말을 보냈다. 「스카돈」은 「푹흐스」의 방에 들어왔다. 『당신은 나 만나기를 원하신다지요. 나는 바로 여기에 왔읍니다』라고 말하였다. 「푹흐스」는 『네 오히려 그것은 이제 나의 의무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강한 감정에 눌리어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걷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푹흐스」는 독일에 있어서의 그의 생활을 「스카돈」에게 말하였다. 즉, 「나치스」에 대항하여 싸우던 일, 공산주의가 세계의 부패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던 그의 신념, 그리고 獨逸共産地域에 있는 그의 부친에 대한 근심 등을 말하였다.

「스카돈」은 다 들었다. 그리고「푹흐스」의 모습은 그가 알기에는 그의 행위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훅흐스」는 아직 그의 犯罪를 말하고 있지 않았다. 「스카돈」은 모든 사실을 말하므로서 스스로의 고민을 풀수 있고 양심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것을「푹흐스」에게 암시하였다.「푹흐스」는『나는 말하도록 당신으로부터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점심을 먹은 후에 自白이「푹흐스」의 입으로부터 흘러 나왔다. 그는 1942년 核研究所에서 일을 시작한 이래로 1년전까지 原子秘密을 쏘련에 제공하였었다. 그는 스스로 쏘련인을 찾아 자진하여 제공하였다. 그가 미국에 가기 전에 그는 신호를 받았고 그가 未知人을 만날 장소를 들었다. 쏘련에 原子情報를 제공하는 것은 불규칙적이였으나 빈번히 하였다. 그가 1946년 미국으로부터 영국에 돌아 온 후로 그는 大義를 위한 공헌을 의미하는 상징의 지급으로서 쏘련으로부터 100파운드를 받았다.「푹흐스」는『그러한 배신에 관하여 혐의를 받고 고민하고 있었던가?』하는 물음에 대하여 그는 물론 혐의에 고통을 받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아직도 공산주의를 믿고 있으나 쏘련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러한 공산주의는 아니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이제는 늦었으나 그는 공산주의와 대항하여 싸울 어떤 무엇을 보였다.

「스카돈」이 1950년 1월 27일 陸軍省에「푹흐스」를 데리고 왔을때 의미있는 조그마한 장면이 벌어졌다. 여기에서「푹흐스」는 공식적인 성명을 하기로 되었다.「스카돈」은 영국, 미국,「카나다」, 그의 동료, 또 어데나 있는 自由世界國民들을 배반한 사람인「푹흐스」를 대면하였다.

「브리톤」은『나는 당신이 설명할 한 의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신에게 준 약속이나 위협에 의하여서 성명을 하도록 유인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하였다.

「푹흐스」는「스카돈」을 보았다. 아마 그 순간에 그는 처음으로 그의 굴곡 많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인권의 존엄, 法에 의한 통치의 진실한 보호자를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는『알겠읍니다. 그렇게 하시오』라고 말하였다.「푹흐스」가 성명에 署名을 한지 4일후 영국은「후우버」에게 그 사건을 해결하였고「푹흐스」는 1941년 말부터 1949년 2월까지 쏘련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FBI국장은 政府高位層에 그 사건의 상황을 통고하였다. 2월 3일 영국은「푹흐스」의 체포를 발표하였다. FBI본부에 前白堊館公報秘書이었고 당시 國防部次官이었던「스티브·어리」로부터 한「멧세지」가 왔다.『본인은「에드거」가 FBI에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귀하가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이것이 본인의 議論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위해서 오래동안 싸워왔읍니다』그리고「후우버」는 M15(英國情報局)長「퍼어서·시리토」卿에게『일이 잘 된데 대하여 축하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귀하의 협조는 경축할만 합니다. 敬具』라는 電報文을 보냈다.

議會合同原子委員會는『「푹흐스」는 미국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의 역사에 있어서도 어떤 다른 스파이보다 더 국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고 보다더 해로운 일을 성취하였다고 말해도 거의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 위원회는 쏘련이「스파이」를 통하여 시간과 돈의 막대한 절약으로서 分裂物質의 대량생산과 實用武器의 고안과 조립에 관한 광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푹흐스」는「로스·아라모스」에서 모든 이 비밀들에 접근하였던 것이다.

「크라우스·푹흐스」는 3월 1일 런던의 中央刑事裁判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송되었다. 그는 적에게 利로울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정보를「未知人」에게 제공한데 대한 혐의에 대하여 有罪를 답변하였다.「푹흐스」의 변호인「디렉크·커티스—베네트」는「푹흐스」가 1942년 시민권을 얻었을 때 그는 알려진 공산주의자였

고 그는 다른 主義者로 가장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말하였다. 辯護人은 「푹흐스」가 자유로히 英國共産主義者와 결합하였다고 말하고 또한 그는 『「맑스」주의이론을 읽은者는 누구나 독일에서나 「팀북투」에서나 공산주의자인 사람은 확실히 같은 방법으로 반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되며 「푹흐스」가 정보를 얻었을 때 그는 자동적으로 그러나 불행히도 첫째 공산주의이념을 위하여 그의 충성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首席法官 「골다드」는 증언을 들은 후 「푹흐스」에게 『당신은 가장 큰 배신으로서 당신에게 주어졌던 厚待와 保護를 배반하였다…. 最長期刑 14년을 言渡한다. 이것이 당신에게 내리는 판결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푹흐스」는 「웜우드·스크럽스」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때부터 「푹흐스」는 자백하고 FBI는 다음과 같은 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즉 「푹흐스」가 「뉴우욕」「싼타프」「뉴멕시코」와 「캠부릿지」에서 적어도 열번 이상 原子情報를 제공한 비밀의 사나이인 未知人은 누구인가? 활동하기 위한 유일한 단서는 「푹흐스」가 모호하게 진술한 것 뿐이다. 즉, 나이는 40에서 45세, 키는 약 5尺, 건장한 체격, 둥근 얼굴, 物理學者는 아닐것이다. 아마 原子關係의 직원도 아닐 것이다. 아마 化學者일 것이다. 그는 스스로 「레이몬드」라고 말하였으나 그의 眞名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막연한 환상이외에는 「푹흐스」는 더 이상의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었다.

미국은 크고 넓은 땅이였다. 物理學者도 아니고 原子關係의 직원도 아닌 중년신사이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둥근 얼굴을 가진 자는 數百萬이나 있었다. 어데서부터 출발할 것인가가 막연하였다.

FBI工作員은 「캠부릿지」에 있는 「푹흐스」의 누이인 「크리스텔·하이네만」夫人과 그의 남편을 방문하였다. 「하이네만」은 1945년 1월말에 한 未知人이 「크라우스」를 만나기 위해 그들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크라우스」는 아직 그들과 휴일을 보냈기 때문에 도착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그 사람은 중년신사였고 건장한 체격이였다. 그는 「크라우스」가 방문하도록 「뉴우욕」 電話番號를 적어 놓고 갔다. 그리고 그는 다음 달에 또 방문하였다. 「크라우스」는 그를 아는 것 같았다. 그들 둘은 잠시 조용히 이야기 하였다. 그 방문객은 그들의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즉, 그는 그들의 아들에게 化學道具를 사다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하이네만」은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하이네만」의 未知人에 대한 回想은 「푹흐스」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것 외에는 그리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캠부리지」에서 「레이몬드」에게 原子情報를 제공하였다는 「푹흐스」의 성명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다시 化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수사범위는 좁아졌다. 이제 FBI는 그들이 진술한 것에 부합하는 化學者를 찾는데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푹흐스」가 자백한 후 며칠 몇 週日동안을 공작원은 化學者들을 찾았다. 그들은 명부와 기록들을 들추었다. 그들의 임무는 거대하였다. 예컨대 1945년 「뉴우욕」市에서만도 化學會社에서 7만5천개의 허가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제거되어 가는 과정에 따라서 수사의 가능성을 1,500에서……1,000……100……20… 으로 줄고 마지막에 「하리 골드」가 지목되었다.

편집후기

「과학과 기술」지 [illegible]월호의 표지와 화보를 보면 벌이 한데 엉켜있는 모습과 여왕벌을 가운데 두고 시녀벌과 일벌들이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을 보고 [illegible]끼는 바가 개인의 개[illegible]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어떤이는 「君臣有儀」를, 어떤이는 「冊友有信」을 느끼기도 할것이다.

이러한 두개념을 다시 풀어보면, 「系序秩序」와 「相互協力」이란 뜻으로 풀어볼 수 있다. 이런의 미로 해석될 때는 하찮은 미물인 벌의 생활에서 하나의 귀감을 배우게 된다.

더욱 하찮은 미물이지만 일사불란한 조직생활은 물론 근면과 책임의 완수를 법칙으로 살아가는 벌에게서 교훈을 찾아보는 것이 망각을 되찾는 어리석은 낭만이라고만 할것인가?